

신안군, 전국 최초 공공주도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 착수

풍력단지개발 사업 착수 보고회...사전 인허가 검토 등 과제 제시 해상풍력 발전단지 10GW 조성...부유식풍력산업협 회장 취임식도

신안군이 공공주도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에 착수했다.

신안군은 최근 자은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주한 덴마크대사, 해상풍력 분야 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10GW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사전 인허가 검토 및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신안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피해 영향조사 및 주민수용성 조사' 등에 관한 과제가 제시됐다.

이번 사업과 관련 지역민과의 상생이 우선이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안 마련과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신안군의 설명이다.

군은 이어 현재 계통연계 방안 등에 대해 서해안 HVDC 통한 계통연계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회 자리에서는 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 제2대 회장에 유태승 COP코리아(주) 공동대표가 취임했다.

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는 흑산도 권역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과 어업인들의 수용성 확보와 계통연계 등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결성됐다.

유태승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안 해역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뜻을 같이하고 있는 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영광이다. 우리의 목표가 한 걸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축사에서 "그동안 1대 회장을 이끌어 주신 OW코리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COP코리아에 대해 격려한다"며 "발전사와 신안군, 지역민 모두가 협력을 통해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을 성공시켜 모두가 이익이 되는 상생의 길을 가자"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유태승 공동대표



지난 25일 자은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부유식 해상풍력 공공주도 착수보고회에서 박찬성 도화엔지니어링 상무가 사전인허가 검토 및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영암 항일운동 역사' 증강현실로 만난다

보훈부 '현충시설 활성화' 선정 남산 김준연 선생 국가현충시설 IT 기술 접목 콘텐츠 제작·전시



남산 김준연 선생 전사관.

MZ세대들이 휴대폰으로 전남 영암의 항일독립운동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은 '남산 김준연 선생 기념관 보물찾기'로 국가보훈부의 '현충시설 기념관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의 보물찾기 사업은 건국의 원훈인 남산 김준연 선생을 기리는 국가현충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 선생과 지역 독립운동가의 업적·활동 등을 담은 관람 콘텐츠를 제작·전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영암읍 남산김준연선생기념관은 기존 현충시설의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 MZ세대와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방문객 누구나 휴대폰 증강현실(AR)로 손쉽게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접하는 장소로 재탄생된다.

사업은 총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가상현실(VR) 관람 및 다국어 해설 시스템 구축 ▲영암군

독립운동 자료회의 개최 ▲포토존 및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으로 시간과 공간, 언어를 초월한 혁신 관람 시스템이 마련된다.

영암읍 교동리에서 출생한 남산 김준연 선생은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 (제헌)국회의원,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언론인, 정치인, 독립운동가로 건국에 이바지한 공로로 1963년 대통령 표창,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남산 김준연 선생 기념관은 2011년 11월 준공됐으며, 그 이듬해인 2012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됐다.

임선동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엔지니어는 "남산 선생의 업적과 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역사가 첨단 기술을 입고 더 많은 방문객들에게 더 편하고, 더 쉬운 방식으로 다가가게 하겠다"며 "특히 MZ세대들에게 지역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올 고향사랑기부금 1억원 돌파

81일 만에...시, 찾아가는 고향사랑 홍보 등 전개

목포시가 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지난 21일 기준 1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는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모금 목표액 5억원을 초과한 5억 67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올해는 81일만에 모금액 1억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성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선보인 '보호종료아동 교육비 지원사업'과 내실을 더한 77종의 풍성한 답례품이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지역 상생과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농협, 광주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및 인근 지자체와 함께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제 확

성과 동참 캠페인을 전개하고 찾아가는 고향사랑 홍보 등 숨겨진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해 우리 목포에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이 모이고 모여 보호종료아동 교육비 지원이라는 싱그러운 열매가 열렸다"면서 "앞으로도 기부자도 지역민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목표만의 특색있는 기부사업 개발과 답례품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향사랑기부 안내 전담반(061-270-1234)을 두고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향사랑 홍보를 전개 중이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

완도군,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 유치

내년 6월 20~22일 개최...20개국 36명 이사, 만장일치 선정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가 위치한 완도군이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완도군은 최근 벨기에 다머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슬로시티 국제조정이사회'에서 20개국, 36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 개최지를 선정할 결과 완도군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 총회는 6월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다. 시장총회에는 유럽, 북미, 아시아지역 시장과 슬로시티네트워크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해 국가별 네트워크 동향과 이슈, 정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33개국, 296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한국에서는 완도를 비롯해 17개 도시가 지정됐다.

청산도는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으며 2018년도에는 세 번째 인증과 함께 완도군 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지난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완도군의 '해양치유' 정책이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을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주요 행사가 완도에서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양치유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웰니스 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 완도의 매력과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사랑의 나무심기'

목포시새마을회, 기후변화 대응 낙엽송·은목서 등 1300주 심어



목포시새마을회(회장 오현석)와 새마을지도자 목포시협의회(회장 김중찬), 목포새마을부녀회(회장 전선미), 직장공감새마을운동목포시협의회(회장 오영록), 새마을문고목포시지부(회장 박영길)가 지난 26일 목포시 입암산 일대에서 각 회원단체 임원과 새마을지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사랑의 나무심기 활동을 벌였다.

〈사진〉 이날 행사는 목포시새마을회에서 매년 식목일을 즈음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나무 심기를 통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지역사회가 함께 자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물론 지역주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해온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 단체와 함께 낙엽송 1200주, 은목서 50주, 수국 50주 등 총 1300주를 심었다.

오현석 목포시새마을회 회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가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한그루에서 시작해 숲을 이룰 때까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목포시새마을회의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다양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미계약' 영광 단주 행복주택 추가 공급

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계층...다음달 4~8일 모집

영광군이 영광단주 행복주택 미계약 잔여 물량을 추가로 공급한다.

영광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단주 행복주택 공급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공급 호수는 44형(전용면적 44.58㎡·23평형)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계층 당첨자 54가구와 예비자 34가구다.

이번 추가모집에선 앞서 입주자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잔여 세대 물량을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순위 내 경쟁 시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하지만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는 청년 계층에 공급한다.

영광단주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60%까지 저렴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다.

청년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495만6000원에

월 임대료는 20만1000원 수준이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최저 임대보증금 636만원에 월 임대료 23만6000원만 부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공용세탁실, 작은도서관, 협동카페,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 복지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서 높은 주거 편의성을 제공한다.

추가모집 청약 접수는 오는 4월4일부터 8일까지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 앱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이들은 내달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광군청 별관 1층 소회의실 현장 접수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진도군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 최우수

다음달 열리는 전남도 대회 진도 대표로 출전

진도소방서는 최근 진도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진도군청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내달 19일 열리는 '전남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하기 위한 일반부 1팀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진도군청과 진도교육지원청, 진도경찰서 등에서 각각 1개 팀씩 출전, 심정지 발생 상황을 5분 이내의 짧은 연극 형태로 표현하고 실제 상황과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승을 차지한 진도군청팀은 진도소방서장 상장과 함께 내달 열리는 전남도 주관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진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박천조 진도소방서장은 "이번 경연을 통해 심정지 환자의 초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일반인에 의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월출산 경치 아래 가족과 영농체험

영암군 '기찬 텃밭' 경작자 모집

영암 월출산 경치아래 텃밭을 가꾸며 가족과 함께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영암군이 '월출산 기찬 텃밭'을 경작할 도시민과 영암군민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월출산 기찬 텃밭은 영암읍 회문리 녹암마을에 조성된 경작지로 한 구역에 16.5㎡(3·5평) 규모

로 총 50구역이다.

군은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장을 제공해 농촌 생활을 유도하고, 영농활동을 해보지 못한 군민에게 텃밭 가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찬텃밭을 조성했다.

참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접수는 영암군 귀농귀촌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받는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